

칼빈에게서 의 기독교 인생관*
Vita Christiani hominis bei Calvin

전광식

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목차

들어가는 말 | 392

I. 그리스도인의 삶의 세가지 의미 | 393

II. 그리스도인의 삶의 세가지 기본 | 402

나가는 말 | 412





요약

칼빈에게서의 기독교 인생관

칼빈은 자신의 주저인 <기독교 강요> 최종판 제3권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길: 그 유익과 효과’라는 제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삶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제6장에서 제10장에 이르는 총 5장에 걸쳐 칼빈은 마치 특별삽입부처럼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Christiani hominis)의 삶’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그는 먼저 그는 먼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철학자들의 교훈과 어떻게 다른지 지적한다. 이어서 우선 그리스도인에게서 삶의 의미는 거룩과 보은, 그리고 부족이라고 보았다. 칭의가 은혜라면 그것을 받은 이들의 과제는 거룩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빛이 쌓여가는 동시에 그것을 갚아가는 보은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거룩이나 보은도 인간이 다 이룰 수는 없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부족함이 그리스도인의

지상 삶의 기본 본질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에게서의 삶의 의미를 가르친 칼빈은 이어서 그러면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다. 첫 번째는 자기부인인데, 이것은 거룩에 상응하는 바른 삶의 자세이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은 부단히 제자로서의 삶에서 자기부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듭거듭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웃사랑은 보은의 인생관에 해당하는 것이다. 현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 대한 보은의 삶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부족함에 대한 바른 삶의 태도이다. 내 힘으로는 성화도 보은도 부족하니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러한 칼빈의 가르침은 500여년의 세월의 간극을 뛰어넘어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 본 논문은 논자가 편집, 발간한 <칼빈과 21세기>(부흥과 개혁사, 2009)에 나온 논자의 글 ‘칼빈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발췌하여 보완한 것이다.



요약

Vita Christiani hominis bei
Calvin

주요어

칼빈, 기독교 인생관, 거룩, 보은, 자기부인, 이웃사랑, 기독교세계관

Abstract

Vita Christiani hominis bei Calvin

Prof. Dr. Koang-Sik Chon

Im dritten Buch seines Magnum Opus,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¹, befasst sich Johannes Calvin mit der Frage Auf welche Weise wir der Gnade Christi teilhaftig werden, was für Früchte uns daraus erwachsen und was für Wirkungen sich daraus ergeben. Dabei setzt er sich einerseits mit einzelnen dogmatischen Begriffen nach dem ordo salutis auseinander und kritisiert andererseits die entsprechenden Dogmen der Römisch-katholischen Kirche.

Inhaltlich thematisiert er im dritten Buch des Unterricht in der christlichen Religion im Anschluss an die Lehre von der Gnade in Jesus Christus die Heilsgeschichte, den Glauben, Buße und Wiedergeburt, die Rechtfertigung, Gesetz und Evangelium, das Gebet, Gottes ewige Gnadenwahl und die Lehre von der Auferstehung. Darüber hinaus befasst er sich in einem besonderen Teil, vom sechsten bis zum zehnten Kapitel mit der Vita Christiani hominis, dem Leben des Christen in der Welt.

Im sechsten Kapitel des dritten Buches beschreibt Calvin die Besonderheit des Christenlebens, indem er zunächst deutlich macht, wie sich die entsprechende biblische Lehre von der

philosophischen Ethik unterscheidet und zwar nicht primär hinsichtlich der Inhalte, sondern im Hinblick auf die jeweiligen Quellen, aus denen die Lebensweisheit gewonnen wird.

Calvin entfaltet in diesem Zusammenhang nun aber keinen konkreten Tugendkatalog, sondern drei grundlegende Wesenszüge der *vita hominis Christiani*. 1. *Vita Sancta*: Der Grund christlicher Existenz ist nach Calvin die Heiligkeit. Diese Heiligkeit des Christen resultiert aus der *communio* und *unio cum Deo*.

Die Heiligkeit ist aber Calvins Meinung nach für Christen nicht nur Gnade oder Identität sondern auch Aufgabe oder Sollen. Der Christ soll sowohl in seiner Persönlichkeit als auch in seinem Leben die Heiligkeit verwirklichen, damit die ganze innerliche und äußerliche Existenz von ihr durchdrungen werde. 2. Das Leben als Dankesschuld: Der Grund auf dem das heilige Leben des Christen ruht ist Gottes Werk der Versöhnung in Jesus Christus. Christliches Leben ist nach Calvin wesentlich ein Leben aus Dankbarkeit für die unverdiente Gnade, die Gott erwiesen hat. 3. Das Leben als Unvollkommenes: Im letzten Abschnitt sechsten Kapitels spricht Calvin von der Unvollkommenheit des christlichen Lebens. Calvin erhebt also keineswegs die Forderung nach einer vollkommenen christlichen Existenz, obwohl Christen in ihrem Leben den Christus durchaus repräsentieren sollen.

Nach der *Institutio* (III, 6), in der Calvin eine *Summa vitae Christianae* entfaltet, lassen sich drei Grundprinzipien des Christenlebens identifizieren:

1. Selbstverleugnung: Abnegatione nostri (Selbstverleugnung) lautet die Überschrift des VI. Kapitels. Für Calvin ist die Selbstverleugnung das Grundprinzip des Christenlebens schlechthin. Der Christenmensch gehört nicht mehr sich selbst, sondern Gott: Nostri non sumus! 2. Nächstenliebe: Nach Calvin, geht es bei der Selbstverleugnung sowohl um Gottesverhältnis als auch um Selbst-, Nächstenverhältnis des Menschen. Die Nächstenliebe setzt Selbstverleugnung in seiner Beziehung zum Mitmenschen vor. 3. Gottvertrauen:

Im letzten Abschnitt des des VII. Kapitels bezieht Calvin das Prinzip der Selbstverneinung noch einmal auf das Gottesverhältnis des Menschen und betont erneut die Notwendigkeit eines Lebens nach Gottes Willen. Wer sich Gott vertrauensvoll ergibt, kann seines Segens gewiss sein.

Angesichts mannigfaltiger Unglücke, Naturkatastrophen, Kriege und Krankheiten gilt es Gott zu vertrauen - damals wie zu allen Zeiten. In diesem Sinne, soll Cavin ein vertrauensvoller Wegweiser nicht nur für damalige Christen sondern auch für die heutigen sein.

Schlüsselwörter	Calvin, Christliche Menschenanschauung, Heiligung, Dankbarkeit, Selbstverneinigung, Nächstenliebe, Christliche Weltanschauung
-----------------	---

들어가는 말

그리스도인은 항상 두가지 질문에 봉착한다. 하나는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라는 주제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전자가 신앙고백의 문제라면 후자는 신앙생활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장로교회 신자들은 전자의 물음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또 성경적이고 개혁주의적인 교리에 견고하게 서 있다. 하지만 두 번째 물음인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 취약하고 신앙고백과 상이한 경우가 많다. 이에 우리는 칼빈의 사상에 근거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어떠한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칼빈은 자신의 주저인 <기독교 강요>²⁾ 최종판 제3권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길: 그 유익과 효과’라는 제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삶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논의에서 그는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한 후, 이어서 중요한 교리들인 믿음, 중생과 회개, 칭의의 여러 측면들, 율법과 복음, 기도, 영원한 선택과 최후의 부활 등을 살피고 있다.

<기강> 전체 분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총 25장 분량의 구원론적인 긴 논의 가운데 3권 제6장에서 제10장에 이르는 총 5장에 걸쳐 칼빈은 마치 특별삽입부처럼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Christiani hominis)의 삶’에 대

2) 이하는 <기강>으로 약칭한다. 본 연구의 텍스트들은 *Calvin's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Latin-English, by H. Henry Meeter Center, 1999와 Johannes Calvin, *Unterricht in der christlichen Religion -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Nach der letzten Ausgabe von 1559 übers. und bearb. von Otto Weber, bearb. und neu herausgegeben von Matthias Freudenberg. 2. Aufl. Neukirchener Verlag, Neukirchen-Vluyn 2008 이다.

해 서술하고 있다.

먼저 제 6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것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총론적으로 기술하고, 이어지는 제7장과 제8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원리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일’을 다루고 있다. 제9장은 비잔틴수도자들이 철학의 전통적 정의에서 이끌어낸 ‘죽음에의 목상’(μελετη θανάτου)에 비견되듯 ‘영생에의 목상’을 중요한 삶의 원리로 부각시키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제 10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인생론적인 논의를 통하여 칼빈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성경적 가르침을 던지고 있다.

I. 그리스도인의 삶의 세가지 의미

제3권 제6장에서 칼빈은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격과 의미를 서술하고 있다. 그는 먼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철학자들의 교훈과 어떻게 다른지 지적한다. 그러한 차이를 내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들이 나오는 근원을 두고 지적한다.

칼빈에 의하면 철학자들의 가르침은 ‘인간 지혜’(sapientia humanuae)에서 비롯된 것으로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 교훈하시는 것과는 그 본질에서 다르다는 것이다. 철학자들만 정의(正義)나 정직(正直)같은 덕목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도 그러한 윤리적 가르침들을 질서정연하게 가르치고 있다. 다만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철학자들의 교훈보다 ‘하나님의 지혜’(sapientia Dei)에서 나온 성경의 가르침들이 더 분명하고 또 비교할 수

없이 훌륭하다는 것이다.

그는 성경은 도처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할 참된 삶이 무엇인지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우리들이 유념해서 배우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미 거룩한 백성이 되어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왜 이러한 교훈들에 계속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이에 대한 칼빈은 우리는 여전히 ‘게으르고 둔하므로’ 자극과 훈계,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을 다양한 덕목과 더불어 상술(詳述)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보편적 원리를 기술하겠다고 말한다. 이는 <기독교 강요>의 지면과 구성의 문제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어떤 주제에 대한 장황한 설명보다 간명한 설명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삶에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할 다양한 덕목들에 대한 설명은 추후 다른 글에서 하든지 아니면 후학들의 과제로 남기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한다. 그의 글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삶(vita hominis Christiani)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의미와 본질을 지닌다.

1. 거룩의 삶(vita sancta)

칼빈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의 근본은 거룩함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된 이유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연합 때문이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 가르치듯 우리가 거룩한 행동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반대로, 먼저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서 그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를 가득 채우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진 것이라고 보았다.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것이 나의 삶의 전부를 장악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거룩함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고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거룩한 자’이므로 그의 삶은 거룩해야 한다. 그렇게 그의 삶이 거룩해야 할 근거는 ‘하나님의 거룩’ 때문이다. 그는 레19:2, 뵤전1:15-16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우리가 거룩해져야 할 가장 중요한 논거라고 제시한다.

이러한 거룩함은 바로 ‘의(義)’요, ‘의로움’이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내면과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가득 채워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롬12:2)는 교훈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다.

그는 우리가 이런 거룩한 삶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내면은 ‘오물범벅이 된 마굿간’처럼 되어 버릴 수 있음을 경고한다. 따라서 우리의 본분은 이미 ‘하나님의 울타리’에 있는 자들이므로 이제 삶에서도 거룩하여 ‘거룩한 성 예루살렘’(cf. 시116:19; 122:2-9)에 거해야 한다고 주창한다. 이렇게 볼 때 칼빈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거룩함이란 은혜이면서 과제요, 또 정체성이면서 당위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은 신분이나 언어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기강> 3권 6장 4항에서 칼빈은 외형상의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이런 이들은 자기 스스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지식이 있다고 확신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과 그의 복음에 대한 참된 지식이 결여된 자들이다. 그는 “교리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다”(Non enim linguae est doctrina, sed vitae)³⁾고

3) III, 16, 4

강변한다.

여기에서 칼빈은 흔히 말하듯 정통교리(orthodoxy)와 정통실천(orthopraxis) 둘 다를 구비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통교리는 본질상 실천을 구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창한다. 말하자면 실천이 없는 교리, 행함이 없는 믿음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는 야고보서의 가르침에 충실하고 있는 셈이다. 야고보사도도 믿음보다 행함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은 행함을 수반하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말하자면 야고보서는 ‘행위의 책’이 아니라 ‘참 믿음의 책’인 것이다. 그것은 구원에 있어 행함을 부각시킨 로마 카톨릭이나 알미니안파의 교과서가 아니라 이신칭의를 가르치고 있으며, 행함은 ‘칭의의 조건이 아니라 칭의의 결과’임을 강조한 루터와 칼빈, 그리고 Bullinger⁴⁾의 교과서인 것이다.

이 논의에서 칼빈은 신앙적 지식, 성경적 진리의 학문이 지니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지적한다. 그것은 다른 학문처럼 이해력이나 기억력(intellectu memoriaque)만으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영혼 전체(totam animam)가 그것에 사로잡히고, 역으로 마음 깊숙한 곳에(in intimo cordis affectu) 그것이 자리잡아야 비로소 파악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진리이해에서 지성만 동원되어서는 되지 않고 지, 정, 의가 다 동원되어 그것을 전(全)인격적으로 수납해야 한다는 것이다.

4) Bullinger, Heinrich, *De Gratia Dei iustificante : nos propter Christum, per solam fidem absq[ue] operibus bonis, fide interim exuberante inopera bona, libri III. ad sereniss. Daniae Regem Christianum, &c. / Heinrycho, Bullingero authore, Tiguri : Officina Froschouiana, 1554. in: Staedtke, J. Heinrich Bullinger Werke 1,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Zürich, 1972.*

이 점에서 칼빈은 또한 인간이 주체가 되어 성경의 진리를 대상화하고 객체화하여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진리가 주체가 되어 내 영혼을 사로잡고 내 마음 깊은 곳에 들어와야 함을 말하고 있다. 이를테면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은 것이고, 내가 진리를 이해하고 포착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나를 이해하고 포착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은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고, 또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⁵⁾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다.

이 교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요 구원의 진리이므로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를 붙잡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먼저 우리 내면을 사로잡고, 다음으로 삶으로 나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통째로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먼저는 그 마음이, 다음으로는 그 삶이 사로잡힌 자들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의 그리스도’⁶⁾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게 된 것이다.

교리는 먼저 마음에 들어가 마음의 생각과 인격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와 내 언행과 삶의 바꾸어 놓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인 것이다. 로마서12장 2절은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새롭게’하라고 교훈하고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먼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에서 이뤄지고⁷⁾,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먼저 마음으로 죄를 품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하는 것처럼 모든 선악은 먼저 마음에서 비롯된다.

5) 히브리서 4장 12절

6) 갈라디아서 2장 20절

7) 로마서 10:9-10, 빌립보서 2:11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성도들은 ‘변화된 마음에서 변화된 삶으로’가는 과정을 밟아야 하는 것이다. 하여튼 칼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은 우리 마음과 삶의 주인’이라는 점이다.

2. 보은(報恩)의 삶

칼빈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할 분명한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셨고 또 자기와 화목시키셨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우리를 구속하셨으므로 이제 그런 구속의 은총을 입은 자들은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마땅히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이중국적을 지니는데, 하나는 천국백성된 것이요, 다른 하나는 지상의 백성된 것이다. 하늘나라 백성된 것은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여 쟁취한 것이 아니고 은혜로 받은 것이다. 그러면 땅의 백성된 것은 무슨 뜻이 있는가? 그것은 하늘나라 백성이 된 은총을 입은 우리들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의미있고 엄숙하게 살아라고 주신 과제로서의 삶이다. 이런 과제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를 주신자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다. 칼빈은 만일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배은망덕의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경고하고 있다(말1:6, 엡5:1, 요일31:1)

이러한 보은의 삶에 있어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먼저는 하나님중심적으로 ‘하나님과의 연합’을 말한 칼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은의 삶을 전개한다.

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면서 동시에 주인(主人)이시다. 그는 우리 마음의 주인만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이시므로 우리는 삶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에 감사하

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셨을 뿐 아니라 스스로 그런 삶의 모범(exemplar)이 되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성도의 거룩한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첫째는 그 거룩한 삶의 근거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되신다는 것, 둘째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가르치신 스승이 되신다는 것, 그리고 셋째로는 스스로 그러한 삶을 몸소 보이신 모범이 되신다는 것이다. 첫 번째 의미에서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시킨 것은 바로 자기 몸에 접붙여 우리로 그의 몸의 지체들이 되게 하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모든 것을 제공하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는 것이 도리어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죄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으며’(고전3:16, 6:19, 고후6:16) 영혼과 육체에 흠과 티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게 될 때, 우리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된다고 한다.

실로 누군가 우리에게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면 우리를 보라. 내게 예수의 형상이 있다’고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니 누군가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교회에 와보라. 그러면 천국을 볼 것이다’라고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하고도 회복된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향기가 일체 보이지 않고 세상의 형상, 죄의 형상, 욕망의 형상만 보인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 칼빈은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이 노출하는 것’(vita nostra repraesentet)이라고 하였다.

3. 부족(不足)의 삶

하지만 <기강> 3권 6장 마지막 항에서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불완전한 삶’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인격과 삶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야 하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안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오직 절대적 복음(absolutum Evangelium)만으로 숨쉬어야 하고, 그의 삶이 복음적 진리의 완전한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어떤 사람이 이러한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요, 또 그런 기준을 가지면 우리 자신을 위시하여 지상교회 안에 남아있을 사람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왜 이렇게 엄격한 삶의 방식을 제시해 둔 것일까? 그것은 그러한 완전한 상태를 목표로 정하고 그것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라는 뜻이다.

사실 하나님은 교회의 거룩함을 요구해 오셨지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그래도 흠있는 교회를 사용해 오셨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교회는 자기의 흠과 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에 의해 쓰임 받아왔다고 해서 목표를 향한 영적 경주에서 게으르거나 자기변화에의 노력을 중단해서는 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완전한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고 해서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온전하게 거룩해 지는’ 목표를 향한 경주를 중단하거나 더디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

말하자면 우리의 거룩이나 경건은 부족하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표나 기준에 비해 우리의 인격과 삶은 많이 부족하다. 물론 우리는 이미 거듭난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에는 거룩함과 의(義)가 있어서 영적인 성장으로 나아갈 영적 생명이 배태되어 있다. 하지만 이것을 자라게 하는

데에는 육체를 입은 인간으로 연약하고 느리고 심지어는 넘어지기까지 하는 것이다. 찬송가의 가사대로 ‘내 힘과 결심 약하여’의 모습이다.

이러한 ‘부족함’에 대한 정직하고도 철저한 인식이 영적 성장의 내적 기초가 된다. 주인의 기대치에 못미친다고 생각하면 그것에 도달하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자기는 완전하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생각하면 영적 성장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라고 보면 된다. 영적 삶에 있어서 포만감과 자만은 금물이다. 이러한 칼빈의 가르침은 이 시대의 소위 영적 지도자들에게 특히 다가와야 할 말씀이다.

이러한 ‘부족함’의 상황에서 유의해야 할 바는 이러한 자만심외에 포기하는 마음이다. 도달해야 할 여정이 아직 너무 많이 남았고 거기로 가는 길이 너무 험하고 힘들다고 하여 낙담하거나 심지어 포기하는 것은 자만심 못지 않은 절망적인 태도이다.

실존주의 철학자 Kierkegaard의 용어를 전용하면 자만이 남성적 절망이요, 본래적 절망이라면, 낙담과 포기는 여성적 절망이요 비본래적 절망이다. 전자가 자기이고자 하는 절망인데 비해 후자는 자기 아니고자 하는 절망이다. 전자가 희망이 없는 절망인데 비해 회한이 담긴 후자는 희망이 숨어있는 절망이다.⁸⁾

하여튼 칼빈은 6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비록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매일의 삶에서 조금씩 전진해가라고 권유하고 있다. 비록 바라는 성공을 거두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혹 실패하더라도 결코 좌절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다.

이러한 성화의 과정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전 삶의 과정을 통해

8) Søren Kierkegaard, *Die Krankheit zum Tode*, Rowohlt, München 1969

찾고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마치 <95개조 선언문>에서 루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명하셨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전 생애가 회개의 과정이 되기를 원하신 것’이라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가르침이다.

성화의 과정을 두고 칼빈은 선지자적 비관론에 빠지지 않는다. 지상에서 육체로 사는 동안에는 결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기 어렵지만, ‘육체의 연약함’(carnis infirmitate)을 벗고 언젠가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in plenum consortium)에 들어가게 되며 그 완전한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II. 그리스도인의 삶의 세가지 기본

<기강> 3권 6장에서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Summa vitae Christianae)을 기술하고 있는데, 그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세가지 원리로 나타난다.

1. 자기부인

사실 이 7장 전체의 제목이 자기부인(abnegatione nostri)으로서 칼빈이 이 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주제가 바로 이것이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삶의 기본원칙 가운데 첫 번째가 자기부인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는 우리들이 자기부인의 길을 가야하는 근거로 먼저 하나님의 주되심을 말하고 있다.

세상에서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서도 하나님께서 주인이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생각이나 행위에서 내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좇아야 한다. 우리는 아예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Nostrī non sumus!* 9) 그래서 우리의 이성(*ratio*)이나 우리의 의지(*voluntas*)가 우리 자신의 행동과 행동의 방침을 주관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 자신에 대한 자기경영권, 자기통제권이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것에 순종해야 한다. 그에 의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지체된 우리를 세속적인 것으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생각과 언어에서, 계획과 행함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좇으므로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을 향하여야 하고, 또 그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칼빈에 따르면 세상에는 자기에게 복종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있는데, 전자가 취한 길은 멸망으로 가는 첩경이요, 필멸의 길이다. *Kierkegaard*은 ‘죽음에 이르는 병’을 절망이라고 했는데¹⁰⁾, 칼빈에 의하면 그러한 병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자기에 대한 복종이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칼빈에 의하면 이러한 순종은 자기를 버리고 우리의 모든 뜻과 힘을 드려 하나님을 섬기는데 있다.

9) 칼빈은 이 경구를 3권 6장 1항을 위시한 여러 곳에서 마치 후렴처럼 반복적으로 표현한다.

10) Søren Kierkegaard, *op.cit*

이러한 순종의 삶에는 육체의 소욕을 버리는 소극적 순종이 있고, 성령의 부르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적극적 순종이 있다. 육체의 부정적 영향을 간파한 Platon이나 이성의 주도를 가르친 Aristoteles같은 철학자들은 소극적 순종은 다소 알았어도 엡4:23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 순종은 전혀 몰랐다. 하지만 이 적극적 순종이야말로 생명에 이르는 관문인 것이다.

칼빈에 의하면 세속철학은 인간 삶의 경영을 이성(ratio)에만 두지만, 기독교 철학(Christiana Philosophiae)은 이성 대신에 성령님에게 둔다는 것이다. 칼빈은 여기에서 우리 삶의 지도원리로 이성 대신에 성령님을 세운다. 그에게는 이성의 절대성만 아니라 그것의 주도권에 대한 강한 비판이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며 그가 내 안에서 다스리는 것이다(*ut homo iam non ipse vivat, sed Christum in se ferat viventem ac regnantem*)(갈 2: 20).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라고 설파한 칼빈은 다음의 원리로 향주일념(向主一念)의 사상을 가르친다. 이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에게 온전히 드리라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삶의 방향을 설정해 준다.

그는 우선 인간의 마음에는 두가지 지향성이 있음을 지적한다. 한가지는 욕망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다. 이를테면 부귀, 권력, 인간칭찬사모, 세상위안 모든 야망과 갈망들, 은밀한 악심, 헛된 생각, 화려함 추구욕, 교만, 허례의식, 뽐내고 싶은 마음, 부끄러움도 모르는 추함, 자기자랑, 교만 등이다. 이는 자기 영혼 속에 숨어있는 악들이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것들이며, 세상영광과 인간영광(*gloriae humanae*)을 추구하는 것들이다.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칭찬을 얻고 싶어 안달이 나 있는 사람들과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으신다’.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고(마6:2, 5, 16), 이들 보다는 창녀와 세리들이 천국에 더 가까운 것이다.

이런 ‘뒤의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오로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며 하나님을 향해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먼저는 일념으로 주님의 뜻과 그의 영광을 구해야 하고, 다음으로는 우리의 전부를 드려 그를 섬겨야 한다. 타락한 인간의 ‘전적부패’와 ‘완전부패’를 가르친 칼빈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이제 ‘전적 섬김’과 ‘완전한 섬김’을 가르친다. 전자는 집중하여 섬겨야 함을 말하고, 후자는 모든 것을 다 드려 섬겨야 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는 섬김의 정도와 방식을, 후자는 섬김의 내용과 영역을 말한다.

그리고 디도서 2장(11~14절)의 교훈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함을 교훈하고 있다. 칼빈은 하나님에게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데에는 두가지 큰 장애물(duo obstacula)들이 있다고 하였다. 첫째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다가 쉽게 빠지는 불경건(impietate), 다음으로는 그보다 범위가 넓은 세상정욕(mundanas cupiditates)이라고 한다. 전자에는 미신은 물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 않는 모든 것이 포함되고, 후자에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의 이성과 의지가 주도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고 한다.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 취해야 할 것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곧, 삼감(sobrietatem), 의로움(iustitiam), 경건함(pietatem)이 그것이다. Platon에게서 보이는 σωφροσυνη는 칼빈에게서 신앙적인 삼감으로 나타나는 데, 여기에는 순결함과 절제, 세상재물에 대한 순결하고 소박한 사용, 그리고 궁핍에 대한 인내 등이 포함된다. 의로움은

모든 문제에 있어서의 공평과 공정, 공의의 자세를 의미한다. 경건함은 우리를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칼빈에 따르면 이렇게 사는 것은 가히 ‘천사적 삶’(Angelicam vitam)과 방불한 것이다. 지상에서 천상의 삶을 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의 삶이 본질상 나그네의 길(peregrinandum in mundo)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하였다. 하늘의 영광(caelestem gloriam)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됨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다.

2. 이웃사랑

우리는 위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고찰하였다. 이제는 그 두 번째 원리로서 자기부인의 삶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칼빈에 의하면 자기부인은 세가지 관계성을 갖는데, 먼저는 자기에 대하여, 다음으로는 이웃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이다.

이러한 자기부인은 아담의 후예들에게는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누구나 인간은 자기를 높이고 남을 멸시하는 경향이 있고 또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별히 자기에게 특이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자랑하느라 교만에 빠지기 십상이다. 그러나 자기에게 오염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보이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쓰고, 또 그것을 별 것아 아닌 것으로 치부하려 한다. 심지어는 그 오염된 부분을 도리어 덕으로 보이려고 치장하기까지 한다. 반면 다른 사람의 나은 것은 악의를 갖고 폄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는 그것을 비난할 뿐 아니라 그 잘못을 부풀리기에 정신이 없다. 이렇게 자기 부인의 문제는 하나님에게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와 타인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던진다.

자기부인을 하지 못하면 교만과 자기 우월적 사고에 빠져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은 높이고 다른 사람은 멸시하게 된다. 특히 자기만족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처신을 비난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교만은 하나님에 대한 배은망덕이면서 다른 이에게 대한 죄이기도 하다.

인간이 이러한 못된 태도에서 쉬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이기기를 사랑하는 것과 자기사랑(φιλονεικία και φιλαυτία)이라는 극악한 영혼의 질병에 걸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질병을 성령님에 의해 완전히 뿌리 뽑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에게 대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온유하고도 친근하게 대해야 하고 또 공손하게 대해야 한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겸손을 유지하면 우리는 교만에 빠질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웃사랑은 이렇게 이웃에 대해 선대하는 것을 넘어 이제 이웃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 고전 13장 4~5절은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라고 이 부분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이웃사랑은 이렇게 먼저 자기유익을 구하지 않는 일인데,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 자신만을 사랑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웃의 이익을 구하는 삶에는 세가지 원리가 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으로 이웃의 유익을 구해야 하는데 그것은 이웃에게 선의와 친절을 베푸는 일이다. 다음으로는 우리의 육체로 하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

의 다양한 기능들을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도 사용하므로 공통적인 유익을 얻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유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이웃을 사랑하는 태도만 아니라 그 소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신적 위탁물(Dei deposita)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인데,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것을 그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그리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주인에게 소상하게 보고해야 한다.

물론 여기에서 칼빈은 이웃을 위해 사용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고 가르치므로 물질사용에서 우선 순위를 유념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 드림이 없이 사용하는 것은 일종의 오용(誤用)이 된다는 것이다.

칼빈이 <기강> 7권 6항에서 가르치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가르침은 심오하고 중요한 깨달음을 준다. 그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교훈에 따라 이웃사랑이라는 선을 실천하지만 낙심하기 쉬움을 지적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선의 행위에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하고, 또 성내지 않아야 한다고(cf. 고전13:4~5) 가르친다.

그는 먼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는지 어떤지 보지 말고 모든 이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보라고 하였다. 우리가 존귀와 사랑을 받는 것도 그 하나님의 형상 때문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존귀와 사랑을 보내야 하는 이유도 그 하나님의 형상 때문이다. 타락으로 인해 그 형상이 흐려지고 손상되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Spiritus Christi)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회복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며, 악으로 대하는 자

들을 선으로 갱아주며, 저주하는 자들에게도 축복해야 한다. 심지어 우리를 해치고 상하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포용하고 선을 베풀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성자(聖者)와 같은 태도가 가능할까?

칼빈은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자세로 가능하다고 본다. 우리들이 동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악함에 개의치 말고 그들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빛나고 있음(cf. 사58:8)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에 의하면 주님은 자기 자리에 그 사람들을 대신 세워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섬기게 하시게 하셨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을 대신하여 그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으로의 섬김은 의무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아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전한 사랑에서 하도록 권유한다. 하나님의 일은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3. 하나님신뢰

7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칼빈은 다시금 자기부인(自己否認)의 원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용하여, 이제 우리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므로 그의 뜻에 우리를 맡기고 그가 주시는 복을 누리고, 그가 주시는 힘으로 역경을 극복하라고 교훈하고 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이성과 의지에 따른 계획에 맡기면 우리들은 한결같이 부귀와 명예를 좇고, 권력을 탐하며, 축재(蓄財)에 눈이 멀고, 사치와 영화를 누리는 것과 같은 자질구레한 것에 미쳐있다. 이런 것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두가지 점을 명심해야 한다. 첫째는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없는 번영을 누리겠다는 생각은 애당초 버려야 한다.

다음으로는 주님의 축복과 무관하게 얻어지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불행을 초래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주님의 축복은 우리의 삶에게 덧붙여지는 그 무엇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초적인 필수구비품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축복이 없이 우리가 꿈꾸는 모든 계획이나 우리가 걷는 모든 길은 제대로 되는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아예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들은 주님이 주시는 복을 의지할 수 밖에 없다. 어떤 경우에서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가 어떤 형편을 베풀든지 그것에 만족하며 나아가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칼빈의 가르침을 다음의 네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안으로는 성령님으로(*principium internum*), 밖으로는 성경으로(*principium externum*)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의 뜻을 좇아야 한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롬12:2) 뜻이다.

둘째, 주님의 뜻이 내게 작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 마음이 순결하고 발라야 한다. 성경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¹¹⁾고 하셨는데, 이러한 의인은 바로 그 중심부터 거룩하고 공의를 추구하는 이들이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그것을 귀하고 중하게 여기면서 그 말씀에서 빛나가지 않아야 한다.

11) 약5:16

넷째, 우리들이 바라는 일이 되지 않아도 조금해지지 않아야 한다. 우리에게 는 나의 뜻이 이뤄지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는데, 그것은 우리의 타이밍과 같을 수 없다. 종종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조금한 시간보다 느릴 수 있다. 하나님의 시간이 늦는 것은 성취의 시간동안 우리로 하여금 인내케 하고 훈련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의지하는 사람은 세인들이 그렇게도 욕심을 내는 자질구레한 것들을 얻으려고 악한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일이 잘 되어도 자기 공로나 지기의 부지런함이나 노력, 그리고 행운으로 돌리지 않고 오로지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만 돌린다.

칼빈은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좇고 그를 신뢰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험하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 험악하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그가 살던 당시의 세상은 500년이 지난 오늘날과 또 다른 양상이었다. 각종 질병과 무서운 전염병, 우박과 서리같은 자연재해, 굶주림과 가족의 죽음, 화재와 전쟁 등이 세상을 소란케 했고 사람들의 삶을 위협했다.

그는 이러한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교훈한다. 어떤 경우에도 평안과 인내를 유지하는 사람이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징계도 참고 견디며, 나아가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다.

나가는 말

글의 모두에서 우리가 던진 그리스도인의 기본적 물음 두가지 가운데 두 번째에 대한 칼빈의 대답은 명쾌하다. 우선 그리스도인에게서 삶의 의미는 거룩과 보은, 그리고 부족이라고 보았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칭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땅위의 삶을 통하여 거룩이라는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렘 11:45; 뵤전1:16)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거룩의 과제를 주셨던 것이다. 따라서 죄로 얼룩진 세상의 삶에서 죄와의 ‘피흘리는 싸움’(히 12:4)을 하면서 거룩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칼빈에 의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신적 은혜의 부채에 대한 되갚음에 해당된다. 한편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삶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의 채무가 쌓여져 가는 것을 뜻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부채를 약간이나마 갚아가는 보은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가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이나 우리의 보은이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부족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성화와 보은의 삶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에게서의 삶의 의미를 가르친 칼빈은 이어서 그러면 어떤 태도로 살아야하는지를 교훈하고 있다. 첫 번째는 자기부인인데, 이것은 거룩에 상응하는 바른 삶의 자세이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은 부단히 제자로서의 삶에서 자기부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듭거듭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웃사랑은 보은의 인생관에 해당하는 것이다. 현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주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 대한 보은의 삶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부족함에 대한

바른 삶의 태도이다. 내 힘으로는 성화도 보은도 부족하니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500여년전에 나온 이러한 인생관은 21세기를 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효하다. 지상의 나그네로 한편으로는 소명의 완수자로, 다른 한편으로 천성을 행해가는 순례자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삶의 의미를 인식하고 그것에 맞는 세가지 기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늘 상기하고 돌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이다.

참고문헌

- Heinrich Bullinger, *De Gratia Dei iustificante : nos propter Christum, per solam fidem absq[ue] operibus bonis, fide interim exuberante inopera bona, libri IIII. ad sereniss. Daniae Regem Christianum, &c.* / Henrycho, Bullingero autore, Tiguri : Officina Froschouiana, 1554. in: Staedtke, J. *Heinrich Bullinger Werke* 1,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Zürich, 1972.
- John Calvin, *Calvin's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Latin-English, by H. Henry Meeter Center, 1999
- Johannes Calvin, *Unterricht in der christlichen Religion -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Nach der letzten Ausgabe von 1559 übers. und bearb. von Otto Weber, bearb. und neu herausgegeben von Matthias Freudenberg. 2. Aufl. Neukirchener Verlag, Neukirchen-Vluyn 2008
- Søren Kierkegaard, *Die Krankheit zum Tode*, Rowohlt, München 1969
- Martin Luther, "Disputatio pro Declaratione Virtutis Indulgentiarum.", in: D. Martin Luthers Werke: *Kritische Gesamtausgabe*. 1. Band (Weimar: Hermann Boehlau, 1883). pp. 233-238.